

‘인간의 폭력성’·‘역사적 트라우마’ 정면으로 맞서

노벨문학상 수상 한강은 누구

1970년 광주 출생 문학인 집안 부친 한승원 작가, 형제도 등단 ‘소년이 온다’ 광주의 아픔 직시 보수정권 블랙리스트 포함 고난 광주비엔날레 협업 등 인연 계속

2024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의식은 ‘인간의 폭력성’이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이 배경이 된 ‘소년이 온다’와 제주4·3사건이 배경이 된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은유하며 ‘인간의 폭력성’을 직시했다는 점에서 문학이 삶에 제기하는 근본적인 물음들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노벨상을 선정하는 스웨덴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 삶의 유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이라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유를 밝혔다.

한강 작가는 1970년 11월 27일 광주 북구에서 아버지 한승원 씨와 어머니 임강오 씨 사이에서 2남 1녀의 장녀로 태어났다. 한승원 작가는 장편소설 ‘아제아제바라아제’ 등을 펴낸 유명 작가다. 오빠 한규호는 소설가, 동화작가이고 동생 한강인은 소설가, 만화가이며 남편 홍용희는 문학평론가로 문학인 집안이다. 한강 작



지난 2005년 문학상상사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상문학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인 한강 씨가 아버지 한승원 씨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문학상상사 제공

가는 아버지 한승원 작가와 함께 ‘이상문학상’과 ‘김동리문학상’을 2대가 모두 수상하는 이색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한강 작가는 아홉 살 때 가족과 함께 광주에서 서울로 이주했다. 풍문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다. 1993년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출판사인 샘터사에서 근무했다. 1993년 ‘문학과사회’에 시 ‘서울의 겨울’ 외 4편을 발표하고, 이듬해 서울신문 신춘문

예에 단편소설 ‘붉은 땀’이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1995년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이 출간된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등단 이후 꾸준하게 작품을 집필하고 있다.

노벨문학상에 앞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영국의 맨부커 상(인터내셔널 부문)을 얻어준 한강의 대표작 ‘채식주의자’는 2007년 발표됐다. 어느날 괴기스러운 고깃덩어리에 둘러싼 꿈을 꾸고 채식

주의자가 되기로 한 ‘영혜’의 이야기를 다룬다. 한강의 작품세계에 있어서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 첫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 한림원이 “한강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다”며 언급한 소설 ‘소년이 온다’는 고향 광주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은 소설로 2014년 발간됐다. 이 역시 2017년 이탈리아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받았다. 5·18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소년 ‘동호’는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상무관에서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돕게 된다. 동호와 함께 상무관을 지켰던 형, 누나들은 계엄군의 고문으로 비극적인 생애를 맞는다.

한강 작가는 소설 집필 당시 방대한 분량의 구술 사료집을 정독하는 등 철저한 고증과 취재를 바탕으로 밀도 있는 문장을 구현했다.

이 작품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주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되기도 했다. 문체부가 주최하는 2014년 세종도서 사업에서 “도서의 사상적 편향성”의 이유로 최종 탈락한 사실도 회자된다.

‘소년이 온다’는 5·18 관련 전시에서 큐레이팅의 모티브가 되는 등 광주 문화예술계에 재창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가 2022년 베니스에서 개최한 5·18민주화운동 특별전 ‘꽃 핀 쪽으로(to where the flowers are blooming)’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6장 제목 ‘꽃 핀 쪽으로’에서 차용된 것이다. 한강 작가는 최근 개막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 전시의 3개 섹션 소제목 ‘부딪침 소리’, ‘겹침 소리’, ‘처음 소리’를 작명하면서 광주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최신작으로 제주4·3사건이 모티브가 된 ‘작별하지 않는다’는 영상 작업을 위해 제주도를 찾은 ‘인선’ 이 민간인 학살과 얽힌 친구 ‘경하’의 가족사를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이 작품으로 2023년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으며 한국인 최초 기록을 썼다. 무엇보다 ‘5월 광주’에 이어 ‘제주 4·3’에도 한강의 문장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영역이 완성됐다.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은 국내 작가로 최초이고, 아시아 여성 작가로도 최초다. 노벨상 전체로 보면, 2000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한국인 수상자다. 한강 작가가 등단한 지 30년만의 쾌거로 이로써 거장의 반열에 올랐다.

한강 작가는 출판사를 통해 “수상 소식을 알리는 연락을 처음 받고는 놀랐고, 전화를 끊고 나자 천천히 현실감과 감동이 느껴졌다”며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것에 감사하다. 하루 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져온 것도 저를 놀라게 했다. 마음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는 ‘한강시대’… 지역 출판문학계 활성화 기대감

독립서점, 오픈런에 ‘읽기모임’ 기획 지역 문인들 “오월문학 관심 커지길”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지역 출판문학계 또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상 직후 서점에 책을 사려는 오픈런이 벌어지고, 읽기 모임 등 시민들 사이에 ‘독서 열풍’이 부는가 하며 지역 지자체들도 문학특구를 강조하고 나섰다. 광주가

문학 중심지로 재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의 독립서점들은 한강 작품을 중심으로 한 ‘읽기 모임’을 기획 중이다. 실제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에서 모티브를 얻어 상호를 지은 광주의 독립서점 ‘소년의 서’는 한강의 작품을 찾는 손님들로 첫 오픈런을 경험했다. ‘소년이 온다’는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로 광주가 가진 역사적 트라우마와 고통을 통해 ‘인간

의 폭력성’을 직시한 한강의 대표작이다.

임인자 소녀의 서 대표는 “책을 사기 위해 서점 오픈을 기다리는 손님들의 줄을 처음 봤다.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다음 날 바로 ‘소년이 온다’를 비롯한 한강 작품이 다 팔렸다”며 “별써 독서모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10월 말 한강 작품을 주제로 한 읽기모임이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책과생활, 러브앤프리, 꽃이

피다 등 광주의 주요 독립서점들도 ‘한강 읽기모임’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도광주문학회, 시립도서관과 함께 ‘시민과 함께 한강 읽기 강연’ 등의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관한 광주문학회관을 활용해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역 문인단체도 지역 문학에 대한 관심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정양주 광주전남작가회 회장은 “크게 축하할 일이다. 광주사람으로서 광주 출신작가가 큰 상을 받아 기쁘다. 한강의 수상 소식은 문학 본연의 역할을 되새기게 한다”며 “특히 소설 ‘소년이 온다’와 ‘작별

하지 않는다’는 광주와 제주의 아픔을 시적으로 승화한 작품이다. 한강 작가를 통해 오월문학과 5·18정신이 세계 속으로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근모 광주문인협회 회장은 “광주문인협회에서 ‘K문학의 산실이 광주구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이를 한강 작가가 이뤄줘 기쁘다”며 “제2의 한강, 제3의 한강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문학계에 팽배하다.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부흥기로 이어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하 고

(주)서산.(주)성암.(주)성암아스콘 염홍섭 회장님께서
2024년 10월 13일, 향년 96세로 별세 하셨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 빈 소 :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실 (1분향소)
- 발인일시 : 2024년 10월 15일 오전 8시
- 장 지 : 전남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산 182-1번지.
- 유 족

아들(상주) 염창곤
딸 염명자, 염선애
손자 염종학, 염종태, 염종엽, 김승훈, 심승보
손녀 염등원, 김유경, 김진경

자부 김수아, 이미나
사위 김봉재, 심재남
손부 김은주
손서 하상윤, 박창선, 장정도

※ 고인의 유지와 유족들의 뜻에 따라 조의금은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주)서산 (주)성암 (주)성암아스콘 임직원 일동